몸과 마음 하나 된 자리 얻어야



–〈능엄경〉은 어려운 경전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 풀이의 오류가 많다보니까 어려운 공부로 인식된 것이지요. 이 경전을 줄여서 '수능엄'이라 하잖아요. '수능(首楞)'이란 일체를 다 성취함이고 '엄(嚴)'이란 견고함이니 일체를 성취하고도 견고함을 얻어야 수능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연하겠지만 실제 경전을 공부해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수행법과 그 대의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보통 공부를 하는데 있어, 그 성취의 근본이 잡히려면 13년이 걸립니다. 처음 입태(入胎 아기를 배는 것)의 과정이 열 달이나 1년이라 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행의 기초다지기가 되어 단전에 핵이 형성되는 정도가 됩니다. 다음 3년쯤은 유포(乳抱) 즉 젖을 먹여 기르는 단계인데 그 핵이 단전에서 명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주의 문을 열고 로케트가 발사될 수 있는 '발사대'를 형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9년쯤 정진이 필요한데 달마 대사의 경우를 보면 '면벽'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로케트가 찰라찰라 발사돼 우주 삼라만상을 두루 보고 느끼고 관찰해 저장합니다. 우주적 진리가 하나의 자리로 응결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리, 바로 마음이라는 자리에 저장하는데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은 바로 중생심으로 일으키고 저장해 둔 업식들을 지우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워지고 지워져서 고요하고 텅 빈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진성의 자리이며 내 몸과 진성이 둘이 아니게 부합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수행을 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능엄경〉 수행은 바로 이런 수행의 길을 바르게 보여주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 다들 쓰는데, 그 도리를 나도 알고 싶어서 컴퓨터 공부하는 책을 사다 봤습니다. 입력하고 지우는 과정이 꼭 들어맞는 것이 흥미로워요.

–무엇보다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의 수행풍토는 형식적이고 관습화된 경향이 많아요. 내 생각으로는, 종단에서 아주 철저하게 수행을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봐요. 평생 틀고 앉아 있어도 결론을 못 내는 수행이라면 자신이나 세상을 위해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승단과 불교계는 수행과 사회화에 대한 관계를 매우 막연히 설정하고 쉽게 접근하고 있어요. 복지사업이나 구호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불교의 사회화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수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달리 봐야 하거든요. 수행의 자리는 언제나 서슬 푸른 수행이 진행되어야 하고 사회적인 일은 또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은 불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홍수가 나서 집과 짐승과 사람이 마구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에 나와 그걸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헤엄을 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두 사람 다 물귀신에게 잡혀 가요. 헤엄 칠 줄 모르는 사람은 물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떠내려가는 사람을 그냥 구경만 할 수도 없어요. 수행이 철저해야 하는 것, 수행을 통해 궁극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언제라도 물에 뛰어들 수 있기 위함입니다. 자기 몸 하나도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 중생을 구제한다고 홍수 속으로 뛰어들면 그 보다 어리석은 일이 있나요. 오늘날 수행의 현장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이야기이고 보면 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종단의 선거제도가 승가규범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불교의 대중화 사회화 노력과 불교본연의 수행전통 계승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해 전부터 동서양과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열기가 대단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행의 방법론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지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와중에 문제제기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혜종고 선사 이후로 화두선에 길들여진 집안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떨치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조계종 종정을 오래 지내신 성철 스님은 평생 화두선을 했다는데 그 문도들은 3000배와 능엄신주 기도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선의 중흥조 경허 선사도 생사가 둘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하나여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이 하나로 계합하는지 체험하려고 물동이 이고 지나가는 처녀에게 입맞춤을 한 것 아닙니까? 일본의 경우 〈능엄경〉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위경(僞經)이라며 배제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능엄경〉을 진경으로 인정하면 일본의 불교가 다 비불교가 되어버리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느 학자도 〈능엄경〉을 위경으로 분류한 것을 보았는데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동안거와 하안거가 결제되면, 제방의 선원에서는 공부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사정이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근래 들어 그야말로 활활발발한 오도송이 터져 나온 적이 있나요? 관습화되고 제도화 규율화된 수행풍토에 젖어서 결제와 해제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년 전에 비해 얼굴의 검버섯이 사라지고 허리가 오히려 더 꼿꼿해진 성원 스님의 모습을 보며 '비결'이 있으시냐고 여쭈었다. 스님은 빙긋이 웃을 뿐 답이 없다. '대력벽우의 소식을 네가 알겠느냐'는 것 같아 뜨끔했다. 스님은 산수화가 그려진 커다란 화선지를 하나 내 놓으셨다. 복사된 그림 상단에 단정한 글씨로 시 한편이 적혀 있었다. 성원 스님의 자작시였다.

세월이여 흘러가다오. 나는 여기 산과 들에서 살아가는 운수객. 청송(靑松)으로 해를 가리고 청계수 흐르는 곳에 구름 잡아 천막치고 달님 불러 고운 밤을 밝히나니 표주박에 옥수 떠 마시고 팔베개 누운 곳에 초향(草香)이 잠겨드는 향연(香煙)속에 잠이 들지요. 산중의 살림살이 이와 같은데 임금님의 손짓도 반갑지 않고 염왕(閻王)도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삶인데 내 어찌 세상일을 탐하랴. 이곳은 근심 걱정이 없는 곳 삶도 죽음도 비켜 가는 곳 달이 물 속을 걸어가듯 강물이 달을 든 듯 나는 언제나 안녕 안녕.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나니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번쩍 눈을 뜨겠지.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6. 역사학자 조좌호 선생

성균관대 총장 지낸 인의예지 박힌 선지식… 일불제자로 살아

1950~1960년대 동국대에서는 동양철학과 동양사상의 두 거목이 있었다. 김용배 교수와 조좌호 선생이다.

당시 김용배 교수는 강의 때마다 하얀 수염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 민권운동가인 함석헌 선생과 같은 인상을 주었고, 조좌호 선생은 붉은 테 안경에 버버리코트를 입고 다녀 멋스러운 신사의 품모를 지녔다.

조좌호 선생은 1917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1991년 입적 때까지 학술 진흥에 매진해 온 사학계의 거목이었다.

조좌호 선생은 1931년 향리의 남면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4월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했다. 1933년 대구사범학교 재학시절에 항일민족운동서클에 가담한 조좌호 선생은 일본경찰에게 체포돼 그해 12월 강제 퇴학을 당하게 된다.

조좌호 선생은 항일운동서클 사건으로 국내대학 진학이 어렵게 되자 일본 유학을 결심, 1941년 동경제국대학교 문학부 동양사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동아연구소(東亞硏究所)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광복을 맞아 귀국, 1945년 연희전문학교 조교수를 시작으로 1947년 부산대, 1952년 동아대를 거쳐 1953~1966년 동국대, 1966~1982년 정년퇴임 시까지 성균관대에서 교수로서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을 쏟았다.

조좌호 선생은 불교사학 연구에 있어서도 스님 · 절에 연관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속 불교를 그대로 보여줬다.

조좌호 선생은 "불교도 자기 고집만 가지고는 통일 불교를 이루지 못한다. 불교를 한다고 해서 불교를 칭찬하는 소리만 들으면 결국 불교는 쇠퇴한다. 불교학자가 아니더라도 불교를 바르게 평가하면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상은 불교학교 교수였던 조 선생을 장차 유교학교인 성균관대 총장을 만들어 서양에 유교를 수출할 수 있게 했다.

동국대에서 조좌호 선생은 독특한 강의로 유명했다.

당시 조좌호 선생이 강의실에



들어서면 500쪽이 넘는 동양사 교재는 펼치지도 않고 3황5제부터 하 · 은 · 주,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전한 · 후한, 위 · 촉 · 오의 도면을 그려 놓고 물 흘러가듯 중국사를 이야기했다.

"어느 나라도 해와 달, 산과 물 없이 문명이 이뤄지는 법은 없습니다. 중국 황하문명은 5000년 전부터 이 일대에 사람들이 모여 들어 신석기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조좌호 선생의 불교에 대한 강연도 마찬가지였다. 조 선생은 흐름에 따른 강연 후 끝머리에 자연스러운 의문과 과제가 생기도록 유도했다.

"중국불교는 한나라 명제 때 들어와 도교와 상쟁 또는 상생하며 크게 일어섰습니다. 수 · 당에 이르러 5호 16국 시대를 맞아 불교는 사상의 근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중국불교 역경사를 통해 여러 종파 분열의 경위를 잘 이해하고 장차 선불교가 중국불교를 대표하게 되는 이유를 철저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조좌호 선생은 강의실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대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 명자 그대로 동양인의 인의예지가 몸에 꼭 박혀 있는 선지식이었다.

나는 조좌호 선생과의 인연으로 이후 인도 부파불교 분열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다. 또 중국 5가7종과 화엄 · 천태 · 삼론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공부하게 됐다.

그와의 인연을 돌이켜 보면 조좌호 선생은 진실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 종도 파도 없이, 모든 관념조차 버리고 오직 일불제자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민족과 역사 앞에 그는 관념을 버린 대자유의 삶을 이어갔다. 치열한 학문에의 정진과 자유가 넘치는 조좌호 선생의 여유는 그를 성균관대 총장으로 이끌었으며 이후 사학계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원동력이 됐다. 조좌호 선생은 〈동양사대관〉 등 저서를 남겼으며 1970년 국민훈장 동백장 및 1982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바로잡습니다



774호(2010. 3. 10일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85편에 실린 사진은 본문에서 제시한 태고종 12대 총무원장 지암 대종사(법명 재윤 在允 · 사진)가 아닌 조선불교 조계종 초대 종무원장을 역임한 이종욱 스님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이재복 지음(270면)

빛 살림

정골요법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 正 골 骨 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